



“낮·밤 모두 컬러 촬영 ... 車색깔·번호판 다 보여요”

2013년 3월 어느 날 늦은 밤, 대전 노은동 주택가에 주차해 있던 차량 한 대가 크게 파손됐다. 뺑소니 차량에 의한 것이었다. 방법을 폐쇄회로TV(CCTV)를 유지·보수해주던 에스티씨의 박광수 회장은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도감간 차량을 잡을 수 없었다. 적외선 카메라가 찍은 야간 영상이 흑백으로만 보여 차량 번호 식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밤에도 컬러로 영상을 찍는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텐데...’

해 가까운 곳만 촬영할 수 있다. 반면 에스티씨의 컬러 카메라는 밤에도 컬러로 영상을 찍고, 가시거리는 300m에 달한다. 박 회장은 “전파의 폭인 ‘파장대역’을 두 배로 확장했다더니 컬러로 더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며 “도로, 군사분계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메라는 오는 6월 대전 유성구에 처음 설치된다. 설치 대수는 15대다. 지을 수 있을 텐데..’

기존 적외선카메라 보안 300m 앞도 감시 가능

올 6월 대전 유성에 첫 설치 연내 中·베트남으로 수출 “내년 60억 매출 달성할 것”

뺑소니 차량을 잡지 못한 아쉬움에 컬러 카메라 개발에 나선 지 2년 만인 올해 초, 그는 제품을 내놨다. 박 회장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CCTV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컬러 카메라는 야간에도 차량 번호뿐 아니라 색깔, 형태 등을 뚜렷하게 찍을 수 있어 범죄 해결 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밤에도 뚜렷한 ‘컬러 카메라’ 에스티씨는 2001년 세워진 보안·원격감시 시스템 개발업체다. 컴퓨터 회사에서 유통 업무를 하던 박 회장은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를 보며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원격감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에스티씨를 설립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블랙박스 개발 박 회장의 주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원격감시 시스템이다. 건물 내부의 온도·전압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에스티씨는 해양수산부, 한국고속철도, SK텔레콤 등 20여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지난해 매출은 30억원이었다.

컬러 카메라의 상품화를 계기로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보안 제품

년달에 한국도로공사의 시험테스트를 통과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도로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에스티씨는 올해 안에 중국 베트남에 컬러 카메라를 수출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블랙박스 개발 박 회장의 주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원격감시 시스템이다. 건물 내부의 온도와 전압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에스티씨는 해양수산부, 한국고속철도, SK텔레콤 등 20여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했다. 지난해 매출은 30억원이었다.



박광수 에스티씨 회장이 오는 6월 대전 유성구에 설치될 보안용 컬러 카메라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달엔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블랙박스도 개발했다. 박 회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엔 전·후방 카메라만 설치돼 있어 사고가 나도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양옆까지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간 영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아이들이 차에 오르고 내리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보안 사업 확대로 내년부터 내년의 두 배 수준인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대동아프앤디의 드림룩 (031)919-1359 △비사로의 자동차 도난방지 엔진락 (031)491-0226 △에스티씨의 보안용 컬러 카메라 (042)536-6761 △인사이트파워의 와트드림 070-4624-6993

물뿌려 청소하는 방수 비데 삼흥테크, 홈쇼핑서 판매

삼흥테크가 비데에 직접 물을 뿌려 청소가 가능한 방수 비데 ‘IS-H15’를 23일 홈쇼핑에서 선보였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방수 비데는 전자제품인 비데에 물청소가 어려운 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모든 방향에서 물을 뿌려도 제품이 이상 없도록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 출시됐으며 기존에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삼흥테크는 더 많은 고객에게 방수 비데를 선보이기 위해 홈쇼핑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5월 손꼽아 기다리는 주방용품업계

수년째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주방용품업계가 유아용 식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5월을 앞두고 유아용 식기 신제품 출시와 할인 행사, 판촉 이벤트 등을 잇따라 시작했다.

주방용품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아용 식기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유아식기 브랜드 ‘헬로베베’를 내놓은 락앤락(사진)을 비롯해 2012년 ‘얌얌’을 선보인 삼광글라스 등 주방용품업체들은 잇따라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알록달록한 색상에 귀여운 캐릭터를 그려 넣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쓴 것이 특징이다.



락앤락은 23일 ‘오븐글라스 이우식 용기 세트’를 선보였다. 내열유리로 만들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수 있고, 냉동실에 그대로 얼려도 된다. 뚜껑에 내부 증기를 빼 주는 구멍을 만드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했다. 아기의 첫 식사인 이유식이 맞춘 소용량 제품이어서 이유식

유·아동 식기시장 매년 20%↑ 어린이날 앞두고 할인·판촉나서

이 끝나면 반찬통이나 양념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도자기도 이날 서울 청계8가 사옥에서 다양한 어린이용 도자기 제품을 출시했다. 본에시(소배)를 50% 함유한 분차이나 재질로 돼 있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구입한 어린이용 식기가 파손되면 보증서가 있을 경우 3년 내 같은 디자인으로 교환해 주는 ‘파손교환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젠한국은 공물 발레리나 등 아가자기 한 캐릭터로 디자인한 ‘키디세트’를 내주부터 판매한다. 김경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Table with 3 columns: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공방 정점, 내추럴엔도텍. Rows include details about IPET analysis, inspection methods, and legal actions.

파문 확산되는 ‘가짜 백수오’ 사태 소비자원 ‘독성 원료 검출은 사실’ 업체 “신뢰 못해...공매도 세력만 이득”

‘코스닥 쇼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내추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발견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비자원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내추럴엔도텍 소송 제기 소비자원, 검찰 고발 ‘땀’

소비자원은 23일 “‘가짜 백수오’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내추럴엔도텍이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며 “백수오 실험 결과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소비자원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방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 유전자 검사 방식도 분석했다”며 “‘내부와 외부기관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검사했으며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수거한 모판 시료로 재검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내추럴엔도텍이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에 발표하기 전 거래처에 조사 결과를 알린 것과 관

중소협동조합 사업 활성화 중기중앙회,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사업 개발 집중 컨설팅’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A large grid of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properties, including houses, commercial buildings, and l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ices for multiple listings.